

News

5대 은행 단기대출 30조 급증...유동성 광풍 '그림자'

데일리안

5대 은행들이 보유한 원화 대출 중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인 잔액은 총 602조5,200억원으로 지난해 말(571조5,782억원)보다 5.4%(30조9,418억원) 증가
전체 원화 대출이 같은 기간 1141조9871억원에서 1203조6179억원으로 5.4%(61조6308억원) 늘어...증가액 가운데 50.2%는 잔여 만기가 1년에도 못 미치는 단기 대출

빚 감당이 안돼서...코로나 여파 속 신속채무조정 급증

아시아경제

1분기 1175명이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2분기 1920명...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
최근 두 달 간의 흐름과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면 3분기 이용자는 2분기를 뛰어넘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전세대출 100조 육박...8월 2.4조 급증

뉴시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97조1303억원으로 전달(94조7296억원) 대비 2조4007억원 늘어...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
통상적으로 8월은 전세시장 비수기...그러나 올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집에 2년 더 살려는 세입자들의 수요가 늘며 매물이 크게 줄었고, 매물로 나온 전세물량은 보증금 크게 올라

예보, 우리금융 지분 매각 재개...최대 10%, 4년 만에 새 주인 찾기

한국경제

예보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재개...2016년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와 동양생명 등 과점 주주들에게 지분을 나눠 판 지 4년 만
잔여 지분 17.25%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 위해 JP모건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매각주관사로 선임하고 수요 조사 위한 투자 안내서 지난달 국내외 잠재 인수 후보들에 발송

금감원 징징계 받은 한화생명, 다음 타깃 삼성생명에 쏠린 눈

머니투데이

금감원,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징징계를 결정하면서 다음 타깃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결과에 관심...
즉시연금 사태로 인해 이례적으로 보복성 검사 논란까지 일었던 터라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빠르면 다음 달 8일 제재심이 예정

유럽계펀드 출금중단에 국내 재간접펀드 출몰이 환매중단

연합뉴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키움 글로벌 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의 환매를 연기한다고 이날 판매사들에 안내...유럽계 자산운용사 H2O가 운영하는 'H2O 멀티본드'와 'H2O 알레그로' 편
앞서 브이아이자산운용도 지난 1일 H2O운용 펀드의 재간접상품에 대한 환매 중단...키움운용의 펀드 규모는 약 3천600억원, 브이아이운용의 펀드 규모는 약 1천억원

카카오게임즈 증거금 58조 중 절반은 증시에 남았다

연합뉴스

8일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에탁금은 63조2천억원...이는 하루 전인 3일 47조3천억원보다 무려 16조원 가까이 증가
열풍을 몰고 왔던 카카오게임즈 일반 공모주 청약에 몰렸던 증거금 58조원 중 절반이 국내 증시 주변에 남아...CMA 잔고도 전날보다 13조원 증가한 58조1천억원

이번엔 '카뱅 효과'...한국금융·에스24 급등

매일경제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IPO를 위해 실무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장의 시장에서 주당 10만원 안팎으로 거래...시가총액은 벌써 40조원에 육박
이를 반영해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 주가는 19.1% 급등해 8만2,20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